2020 한국전자전 & KVRF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2020 한국전자전(KES, 이하 전자전)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되었다. 본래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올해 전자전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고, 해를 넘기기 전인 12월로 개최가 미뤄졌다. 2.5단계의 방역 지침으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철저히 관람객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세심한 주의와 준비를 기울인 결과 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전자, 통신, 미디어 관련 전시회는 열리지 못했으나 유일하게 한국전자전이 노력 끝에 개최되어 내년 전시회 개최의 작은 희망의 신호탄으로 여겨진 듯하다. 그러나 연기를 거치고 사회 분위기에 더해 전자전은 예년 대비 절반 규모와 참관객으로 막을 내렸다.

전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산하 기

뉴노멀 생활가전관 전시 부스

다양한 자동차 솔루션의 자동차 융합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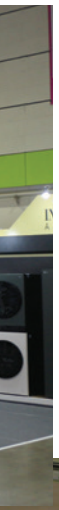
관과 뉴노멀생활가전관, 미래형자동차 인력양성 컨소시엄 외에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타 전자회사에서 제품과 솔루션/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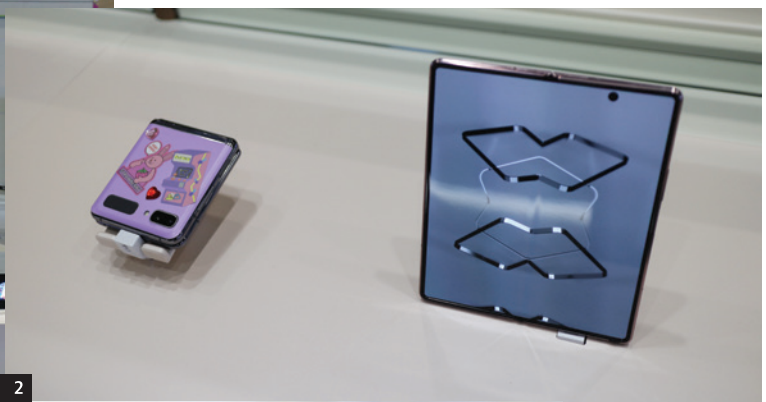
전시 분야로는 IoT/스마트홈, 웨러러블 기기, 인공지능/로봇, 빅데이터/딥러닝, AR/VR/3D, 미래차/전기차/자율주행자동차/드론, 디스플레이/소재/센서/장비 등의 제품과 솔루션이 전시되었으며,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KES Innovation Awards 등도 열렸고, 코엑스 1층 A홀에서는 KVRF 2020 &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을 통해 VR 엑스포와 컨퍼런스, 신제품 발표회·서비스 발표회 등과 블록체인 서울 2020도 동시 개최되어 볼거리와 체험을 해 볼 수 있었다.

삼성 & LG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과 TV 등의 가전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 S20 FE, 갤럭시 Z 폴드 2/Z 플립 5G 등과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탭과 갤럭북으로 부스의 반을 전시했으며, 그밖에 비스포크 키친핏과 그랑데 AI 모듈, 신기세척기, 스타일러 등의 가전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 CES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전시했고, 4K 빔프로젝터 프리미어 빔을 한쪽에서 시연했다.

마이크로 LED는 RGB(Red, Green, Blue) 소자가 스스로 빛과 색을 모두 내는 기술로 자발광하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활용함으로써 백라이트, 컬러필터와 같은 층을 디스플레이 구조에서 덜어낼 수 있어 훨씬 얇은 크기로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신제품의 크기는 약 3.3㎡ 수준으로 마이크로 LED 소자가 800만 개 이상 집적되어 4K의 해상도를 표현한다. 또한 무기물 소재로 화질 열화와 번인에서도 자유로우며, 10만 시간의 수명도 유기물 소재를 사용한 TV 대비 장점으로 꼽힌다. 전시 제품에는 마이크로 AI 프로세서가 사용되어 HDR 구현을 통해 입체감을 높이며, 5.1채널의 사운드를 TV 내에서 제공한다. 110인치의 화면을 4분할로 시청할 수 있는 쿼드뷰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의 마이크로 LED TV는 초고가 시장을 목표로 2021년 1분기 정식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1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1 2
3 4

1.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전시
2. Z 플립 5G과 Z 폴드 2 체험존
3. CES 등에서 선보였던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 전시
4. 벽과 불과 몇 Cm만 띄우면 동작이 가능한 4K 빔프로젝터 프리미어 빔.

1. 시그니처 OLED 롤러블 TV 2. 미래형 자율주행차 콘셉트 3.163인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매그니트 4. 120인치의 시네빔
5. 최근 한국커피협회에서 국내 최초로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획득한 클로이 바리스타봇 6. 정수기, 냉장고 및 스타일러, 주방 등 생활가전을 전시한 Objet존

LG전자는 시그니처 OLED 롤러블 TV와 시네빔, 미래형 자율주행차 콘셉트, 삼성과 같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163인치 매그니트로 4K의 생생한 화질을 보여줬다. 그 밖에 오브젯 가전들과 스마트폰 윙, 시네빔 등을 선보였고, 커피, 배달 등 클로이를 응용한 다양한 로봇을 시연해 다양한 가전의 발전 양상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

기타 부스

우선 여러 부스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용 모듈을 장착한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를 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연구 및 사업 진행 상황 등도 전시되었다. 이밖에 각 대한 산학협력단에서는 개발 진행 중인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선보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무인 헬기 등 첨단 제품 등도 전시했다.

1 2

3 4

1. 국방과학연구소의 다목적 무인 헬기
2. 최고속도 80km의 KST 전기차 마이브
3. 차량용 고정형 3D 라이다(LiDAR)를 적용한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
4. 비교적 한산했던 2020 한국전자전

2020 KVRF

A홀의 VR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VR/AR/XR 업체와 단체가 참가해 제품과 솔루션을 홍보했다. kt 엔터프라이즈, 화웨이 등이 참여했고, 교육/재난안전/도로교통 등 사회인프라존, 물류유통/조선/농업 등 산업융합존, 게임/관광/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존, 그밖에 유관기관존, 플랫폼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 및 연구개발 중인 VR 기술과 서비스가 소개되었다.

1 2

3 4

1. VR 엑스포 전시장 입구
2. 화상회의 솔루션 등을 전시한 화웨이
3. 8K급 360VR, 180VR 라이브 중계 기술과 5G 기반 VR 제작솔루션을 선보인 DIKE와 ETRI
4. 다양한 XR 관련 업체가 출품했다
5. B2B 서비스를 전시한 kt 엔터프라이즈
6. 마이크로소프트의 독립형 혼합현실 HMD HoloLens 2를 체험 중인 관람객

5 7